



▣ 두산인프라코어, 상생경영 위해 e-Sourcing 구축

Cyber 등록 창구로 활용... 협력회사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소개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주)는 협력업체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 'e-Sourcing'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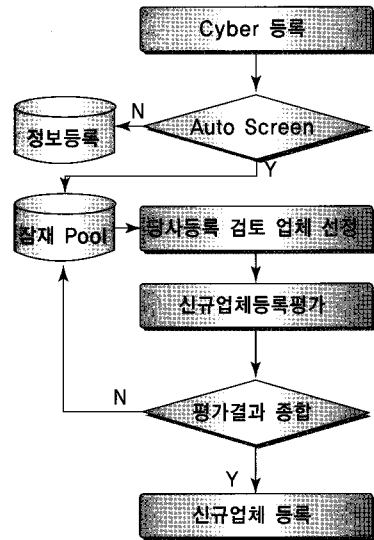
두산인프라코어의 'e-Sourcing'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평가해 정식 협력회사로 등록하는 체계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협력관계를 희망하는 회사는 두산인프라코어의 'Cyber구매광장'에 접속, 회사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생상품목에 대한 시스템 자동평가를 거쳐 잠재업체로 등록된다.

두산인프라코어의 'e-Sourcing'은 협력관계를 희망하는 회사가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업 스스로 거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 자동 평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Cyber 등록 후 ID와 패스워드를 제공해 기업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이버 구매광장 <http://ez-purchasing.doosaninfracore.co.kr>에는 ▲ Cyber 등록 창구로 활용 ▲ 협력회사 선정 기준 및 절차 소개 ▲ 두산인프라코어의 구매 현황을 소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e-Sourcing' 협력회사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http://ez-purchasing.doosaninfracore.co.kr> > Cyber 등록 > Cyber 등록

-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중소기업·대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등록해 기초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Auto Screen(시스템 자동평가)을 통과하면 잠재 풀(Pool)에 등록, 추후 당사에서 등록 검토 업체 선정 시 추가적인 등록 절차 진행
- 총점 600점 이상(품질 400점, 납기 50점, 기술 100점, 환경 100점, 경영 350점)
- 품질인증 필수(ISO9000, QS9000, TS16949 중 1개 이상)
- 구매부문평가 SHEET(경영관리 300점, 원가관리 100점, 환경관리 100점)
- 품질부문평가 SHEET(품질관리체계 500점)
※ 가산점 : Global능력도(40점), 고객만족도 관리(20점)
- 총점 750점 이상
- 전자신용인증 등급 B 이상 / 종업원수 7명 이상
- 평가결과 Feedback(평가결과 종합 이후 15일 이내)
- 전자공인인증서 제출
- 구매기본계약서 체결
- 납품대금지급 약정서 체결



▣ 하이닉스 'CIS사업부와 공정거래법' 특강 실시

카르텔 규제 실무 주제로... 중앙대 조성국 교수 진행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중갑)는 5월 26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경영지원본관 홍보관에서 공정거래(반독점법) 부문별 특강(CIS사업부)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조성국 교수를 초빙, CIS사업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IS사업부와 공정거래법 : 카르텔 규제 실무'를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지난 1월 구매·외주부문에 이어 5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CIS사업부 백동원 전무를 비롯해 CIS사업부 임직원 112명 중 96명이 참석해 85% 이상의 높은 참석율을 기록했다.

특강을 진행한 조성국 교수는 회사의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특히 카르텔 관련 이슈를 평소 법과 친숙하지 않은 임직원들에게 쉬운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강의 후 별도의 Q&A 시간을 가져 임직원들이 가져왔던 궁금증을 풀어 주기도 했다.

하이닉스 자율준수사무국에서는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임직원들을 위해 강의를 촬영한 Video Clip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fairtrade.hynix.com> → 공정거래자료)에 올려 지속적인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웅진코웨이, 정직원 대상 CP 교육 실시

자율준수담당자 5명 선임... 준법감시자 가이드라인 제시



웅진코웨이(대표 홍준기)는 컴플라이언스 운영팀 주관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여에 걸쳐 정직원을 대상으로 CP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4차에 걸쳐 총 471명의 정직원들에게 CP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인지시키는 한편, 현재까지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면서 CP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확대시켰다.

또, 지난 해 8월에 있었던 CEO의 자율준수인지 천명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 직원의 자율준수의를 고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총 5명의 자율준수 담당자를 선임해 향후 활동 계획과 비전을 공유했으며, 각 팀의 준법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 금호생명,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실시

법규 준수로 금융 신뢰도 쌓고 기업이미지 높여



금호생명(사장 최병길)은 6월 2일 오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과 모든 팀장이 참석하고, 임직원은 사내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서 최병길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사와 준법감시팀장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로 임명하는 임명장 수여와 함께 참석 임직원과 결의문을 낭독했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순회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병행해 임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율준수 실태에 대해 정기적 점검·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호생명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가 정한 법률을 준수하고 약관의 규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경쟁촉진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실행방안도 수립했다.

이날 개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은 금호생명은 투명한 기업 활동과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고객을 중시하는 정도기업으로서의 토대를 확고히 하고,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와 자율적인 법규 준수의를 생활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호생명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통해 기업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전 예방, 기업 이미지 고양, 그리고 끊임없는 고객 신뢰를 쌓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 대한생명, 브랜드경영 본격 시동

새 브랜드 슬로건 'Love your life, Love your dream' 발표



대한생명이 총자산 50조원 돌파를 바탕으로 '새로운 브랜드 전략과 대한생명 고유의 '조직문화(KI Way)'를 선포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대한생명(대표이사 신은철)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Love your life, Love your dream'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브랜드 경영에 나섰다.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은,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1등인 나라'를 지향하기 위한 대한생명의 고객에 대한 약속을 표현한 것이다.

대한생명은 브랜드 핵심정신을 '고객이 1등인 나라'로 정하고, '고객이 꿈꾸는 행복한 미래의 삶을 함께 실현해 나갑니다'를 브랜드 비전으로 선정했다. 브랜드 경영을 강화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오래된', '보수적인' 등의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고객을 최우선하는', '세련되고 전문적인' 등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정립할 계획이다. 대한생명은 향후 홈페이지, 고객안내장 등 회사와 관련된 시각적 비주얼 아이덴티티(VI)를 통합하기 위해 디자인 포맷도 새롭게 제작했다.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커뮤니케이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 포맷은, 브랜드 컬러인 오렌지색을 근간으로, 한화그룹 CI인 'TRI Circle'을 역동적으로 재해석한 '성장하는 역동성(Rising Movement)'을 구현했다. 한편, 대한생명은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정의된 기본자세에 의거 임직원들이 실천해야 할 48개 행동강령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최선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고객정보 보호 및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세이디에스,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실시

대규모소매업고시와 경품류제공고시, 표시·광고법을 중심으로 교육



백화점 세이(대표이사 손가근)는 직영점 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 예방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08년 상반기 공정거래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백화점 세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사무국에 해당하는 영업전략팀 박상천 대리가 강의를 담당한 이번 실무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소개와 실무 적용을 통한 법률 이해와 설명 등을 적절히 배분하며 진행됐다. 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중 대형유통업체와 가장 밀접한 내용인 대규모소매업고시와 경품류제공고시, 그리고 표시·광고법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특히, 불공정거래 유형 및 사례와 공정거래 준수사항 등 실무 및 현장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11월 CP를 도입한 백화점 세이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회원사 소식



□ 앤알커뮤니케이션, 임직원 방문판매법 교육

교육을 통해 소비자 보호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강화



앤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조창식)은 최근 서울 역삼동 앤알커뮤니케이션 사옥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방문 판매법 맞춤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올바른 운영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본합회의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단단계 판매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참석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앤알커뮤니케이션 조창식 대표는 "자발적인 준법의식 고취와 능동적 CP 운영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두산건설 김기동 사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CP 제정·운영 및 하도급업체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하는 등 공로 인정



두산건설 김기동 사장이 '2008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6월 1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 건설단체 및 유관단체 기관장, 건설업계 임직원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김기동 사장 등 152명에게 정부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두산건설 김기동 사장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과 함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기동 사장은 32년간 한결같이 건설인의 길을 걸으며 다양한 현장실무 경험을 쌓고,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건설기술 선진화에 앞장서 왔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의 상용화를 주도하는 한편 '건축기술지침' 등 각종 건설기술 관련 저술활동을 통해 후학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는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 운영하고 하도급 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업계 차원의 투명·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현장중심 경영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등 건설업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됐다.

□ 계룡건설, '협력업체 상생 워크숍' 개최

협력업체 당면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



계룡건설(사장 한승구)은 6월 27일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현재 성실히 시공 중인 150여 개의 우수 협력업체를 초청해 '2008년 계룡 협력업체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계룡건설 강당에서 총 5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현재 협력업체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을 도출시켜 현장관리 및 노무관리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은 열린노무법인 대표이자 건설관련 전문노무사인 전해선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건설관련법개정사항에 대해 협력업체가 실제 법적인 면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하도급관리 강의시간에는 하도급담당 부서장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영윤리의 일환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취지 및 운영 등을 소개하면서 "협력업체의 우수한 현장관리와 원수급자의 투명한 경영관리가 진정한 상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계룡건설은 7월 10일 교육 대상을 전 현장소장 및 관리책임자로 확대한 하도급특별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박회순 하도급과장을 강사로 초빙, 현장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하도급 전반에 걸친 올바른 마인드를 갖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